




현대는 불을 어떻게 얻느냐의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의 시대이다. 불을 확보하는 길이 살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쓰는가가 현대의 주도권을 움켜쥐는 길이다. 때로는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때로는 자연친화적인 삶을 위해서 불은 더욱 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불은 이미 강력한 무력(武力)이 된 시대이다. 이름하여 핵(核)이라는 불이다. 6자회담이니, 이란문제니 하는 것도 불의 이런 측면이 반영된 결과이다.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두고 신과 줄다리기를 했듯이 핵을 두고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어쩌면 새로운 불의 신화시대가 왔음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때에 불(火)을 담아 쓰던 등(燈) 이야기는 매우 소박한 것이지만 불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는 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근대 조명 기구가 쓰이기 전까지 무엇을 썼을까? 이름도 낯익은 등잔불, 접시불, 촛불도 있고, 밤길을 다닐 때 쓰던 초롱불이나 조족등도 생각난다. 짜릿한 첫날밤을 밝히던 청홍색 촛불이나 상가 마당가에 피워놓은 화톳불도 널리 쓰이던 불이다. 이런 불들은 모두 인위적인 전깃불이 쓰이기 전에 우리네 삶을 밝혀주었던 그저 고마운 불이었다. 그러기에 이런 불에 대한 기억은 고향 이미지와 겹쳐 참으로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불러 일으키기에 부족하지 않다. 가난한 삶 속에도 넉넉함을 주는 그런 빛이었다는 말이다.

전통적인 조명 기구 중에 주목되는 것이 고콜불과 등경돌이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이름마저 낯설지만 고향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다. 고콜불과 등경돌을 원시적인 조명 기구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연에서 산출된 관솔을 쓴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 조명기구다. 최첨단 기구로 변모하는 문명의 이기 속에 고콜불과 등경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듯하다. 하지만 자연에서 산출된 연료를 재료로 하여 불을 밝히고 타고 남은 재를 자연으로 돌려보낸



자연친화적인 불, 고콜불에서 등경들까지

현대에는 다양한 조명기구들로 불이 흔한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불이 귀해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불을 밝히곤 하였다. 자연에서 나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불을 밝혔던 고콜불과 등경들을 돌아보며 '불'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다는 점은 지금도 자연친화적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공해 문제와 연료난 때문에 불과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버렸고, 그것이 곧 금력과 권력으로 이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질박한 불을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환상의 빠알간 불빛, 고콜불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는 이름도 낯선 '고콜불'을 썼다. 고콜은 관솔불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벽과 벽이 맞닿는 모서리에 만든 작은 아궁이를 말한다. 방안 윗목 모서리에 진흙으로 둥글게 쌓아올리는데, 아래쪽에 턱을 지어 아궁이를 붙이고 위쪽에는 처마처럼 그늘음과 연기를 빨아들이도록 했으니, 마치 덮개있는 새둥지 같다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궁이라지만 온 방을 밝히기에 적당한 높이, 이를테면 등잔 높이쯤 쌓는다. 관솔은 물론 소나무 송진이 엉겨 굳어진 옹이나 가지를 가리키는데, 불이 잘 붙는 탓에 흔히들 불쏘시개나 길잡이 불로 썼던 기억이 떠오른다. 한 마디로 고콜은 관솔을 벽 모서리 아궁이에 올려놓고 불을 밝히는 불박이용 등잔인 셈인데, 고콜에 밝힌 관솔불이라 해서 고콜불이라 불렀다.

고콜에 타오르는 빛은 다른 불과는 달리 빠알간 불줄기 그 자체다. 어둠에 피어나는 불줄기와 고콜불이 밝히는 불빛은 경이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나 할까. 아마도 굴뚝 끝에서 빨아올리는 힘 때문에 불줄기가 실처럼 피어나는 일일 텐데, 새빨간 불줄기가 흥실처럼 피어오르다 마침내 검은 빛줄기처럼 고콜의 천장으로 빨려 올라가는 모습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환상일 성싶다. 어둠 속에 피어오르는 불줄기는 방안 가득히 들어앉은 어둠을 쫓기에 충분했고, 아낙네들은 그 불빛으로 바느질도 하고 길쌈도 했다. 그만큼 관솔불은 넉넉한 불빛을 주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관솔이란 게 워낙 송진덩어리인



지라 시꺼먼 연기가 일어 방안 사람들을 늘 괴롭혔다. 그래서 벽을 따라 지붕 밖으로 굴뚝을 내어 연기를 쫓는 지해도 놓치지 않았다. 처음 보는 이들은 고콜을 작은 벽난로쯤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벽난로는 난방용 화로이기에 장작과 같은 땔감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큼직한 아궁이이고 그 높이도 방바닥에 닿을 만큼 낮은지라 눈여겨보면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석탄을 주연료로 쓰기 전에 강원도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이 나무를 땔감으로 썼다. 그러나 강원도만큼 나무를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이산 저산 지천으로 널려있는 나무를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곳은 역시 산간 지방인지라 관솔도 쉽게 얻기 마련이다. 장작을 쪼갠 적에 누렇게 익은 관솔이 흔치 않게 나오는데, 이를 따로 떼어 좀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쓴 것이 바로 고콜불인 셈이다.

고콜은 그러나 오로지 방을 밝히는 데만 쓰이지 않았다. 관솔불을 오래 피우다보면 상당한 열이 발생하는지라 자연히 방안 공기를 덥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찬 기운을 가시는 정도겠지만, 그 또한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고콜에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구워먹는 일은 어른들 몫이라기보다 재기가 넘친 아이들 차지다. 어찌다 운 좋게도 아궁이에서 숯이라도 얻으면 부삽으로 퍼다가 고콜에 올려놓고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구워 먹는 쫄쫄한 재미를 어찌 아이들이 빠뜨리겠는가. 화롯불에 고구마를 구워먹던 기억이 있던 사람들은 금세 고콜의 재미와 그 맛을 느낄 수 있으리라.

송진 향내 나는 솔각돌, 그리고 등경돌

제주도에서는 어떤 불을 썼을까. 제주섬의 사람들 역시 관솔을 이용해 불을 밝히는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았다. 다만 관솔은 육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니 제주말로 달리 '솔각'이라 일컬었다. 이름도 특이하지만 송진의 진한 향내 나는 솔각을 돌기둥 위에 올려 놓았다. 솔각을 올려놓은 돌을 '등경돌'이라 했고, 다른 말로 등잔돌이라 했다. 제주섬에 많이 나는 현무암을 원통형으로 다듬고 그 위에 솔각을 올려놓는, 그야말로 단순 질박한 등화구이다. 솔각에 불을 붙이고, 타는 대로 불을 이어붙이면 그만이다. 고콜불만큼이나나 번잡스러웠지만 기름이 귀하던 시절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불이었다. 지금은 등경돌을 쓰는 가정이 없어 쓰임새로만 본다면 낯설게 보일 수밖에 없는 돌덩이가 아닐 수 없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이나 제주도 돌공원에 유물로 남아 본디의 모습과 다른 겉모양을 보여주고 있지만, 따져보면 한없이 애착이 가는 등화구이다. 제주도 돌공원에 남아있는 등경돌은 윗면을 살짝 다듬어 흠을 내는 멋을 부렸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한 등경들은 단순히 원통형이다. 높이가 49cm이고, 둘레가 17cm이다. 출각을 놓아 불을 밝히기에는 안정적인 구조인 셈이다. 무게 중심으로 보아 쓰러질 염려도 적고, 그래서 화재를 막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등화구가 아닐 수 없다.

생김새로만 보자면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세숫대야를 올려놓는 받침대쯤으로 짐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높이가 4~50cm쯤 되니 허리를 한참이나 굽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개를 가우뚱거리겠다. 불을 붙인 출각을 놓아 방안을 두루 밝힌다는 말을 덧붙여 쓰임새를 설명할라치면 보는 이마다 웃음을 자아낸다. 설명에 걸맞은 그럴 듯한 모양새 때문이라.

이동을 해야 할 때에는 등경들을 조금 변형시켜 쓰는 지혜를 발휘했다. 이름하여 ‘출각등’이라 했다. 화산 돌맹이를 종 모양으로 다듬고 한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위 아래로 통하게 만들었다. 위쪽에는 출각을 꽂고 아래쪽으로는 재가 빠지게끔 한 것이다. 불을 붙인 출각을 위 구멍에 꽂고 등처럼 들고 다니며 길을 비추는 것이다. 펍이나 큰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섬 여기저기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현무암인지라 크게 돈 들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만큼 서민들이 아껴 두루 쓰는 생활용구가 된 것이다. 이런 출각등이니 마실을 가야 할 때나 어두운 통시[변소]를 가야 할 때 유용하게 썼음은 물론이다. 특히 통시를 무서워했던 아이들이 애써 받치고 오가며 유용하게 썼음은 당연한 일이다. 불이 귀했던 시절의 이야기니 한 귀로 흘려도 무방하다.

지난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불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며, 일상에 불을 쓰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새삼 알 것 같다. 돌을 다듬어 등경들을 만들고 출각등을 다듬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날마다 쓸 관솔을 얻는 것은 또 하나의 일일 성시다. 장작을 썰 때마다 웅이 진 부분을 눈여겨 관솔을 찾아내야 했을 것이다.

스위치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스위치도 없는 자동센서로 살고 있는 우리들, 고콜불이나 등경들에 대한 아련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고향을 느끼는 것은, 고콜불을 밝히고 등경들에 출각을 올려놓던 그 때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불은 너나없이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데,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불을 밝히고 사는 일상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데 있다. 불의 새로운 신화시대에 원시에 가까운 불을 돌이켜보는 것도 이런 뜻이다. 불을 아는 자 세상을 얻을 진저... (🌀)